

토종 전시포 방문 및 벼베기 행사

아이들 탈곡 체험, 미꾸라지 잡기 등 웃음꽃

“토종조를 집에서 기르는 새한테 주면 잘 먹을까요?” 지난 9월 27일 충북 괴산군 불정면에 위치한 흙살림 토종연구소에서는 제8회 토종전시포 방문의 날 및 벼베기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광진정보도서관 도시농부들을 포함해 50여명이 참가했다. 가을햇살 마냥 반짝이는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들과 웃음소리가 가득하면서 행사장은 축제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다.

이태근 흙살림 회장은 “유기농업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이번 체험을 통해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유기농업에 대해 생각해보고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곧이어 진행된 행사는 토종벼가 심겨진 생태논 탐방과 벼베기 체험이었다. 생태논에는 일반 논에서는 볼 수 없는 생태동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곳엔 미꾸라지와 참붕어가 뛰놀고 있다. 아이들은 미꾸라지를 한 번 잡아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지만 연신 손 사이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풀안 가득 웃음만 가득 채웠다.

■ 아하, 이게 토종이구나
 토종벼베기는 ‘무산도’라는 품종 위주로 진행됐다. 무산도는 조생종인지라 지금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안전에 주의하면서

낮질하는 벼를 전해들은 아이들은 결의에 가득찬 모습으로 논에 들어갔다. 하지만 낮질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 찢찢매자 여기저기 격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와, 우리 아들 벼 잘 베는데! 커서 농부가 되면 잘 하겠다.” “야, 우리 딸은 완전 농사꾼 체질인데...”

이렇게 한 아름씩 베어낸 벼는 ‘아롱아롱’과 ‘홀태’를 통해 탈곡 작업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전통 농기구가 신기했던지 줄을 서서 기다리며 탈곡하는 재미에 빠졌다.

탈곡이 끝나고서는 토종잡곡밭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은 참새들이 꼬아먹는 것을 막으려고 설치해놓은 허수아비 등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럼, 이 토종잡곡들은 집에서 기르는 새한테 먹이로 줘도 되는 거예요? 농약 안 썼어요?”라면서 조를 베어가려는 아이에서 키가 4m가 넘는 수수를 올려보느라 정신 없는 아이까지 모뎀게 신기한 모양이다.

■ 어머, 왜 이렇게 맛있어
 토종전시포를 둘러본 행사참여자들은 본격적으로 체험에 참여했다. 가지 따기와 방울토마토 수확, 땅콩 캐기, 그리고 집에 돌아가기 전 토종호박으로 죽 만들기 등 손과 입이 모두 즐거운 축제였다. “방울 토마토 맛 좀 보세요.



벼베기 행사에 참가한 아이들이 추수한 벼를 ‘아롱아롱’과 ‘홀태’ 등 조상대대로 내려온 농기구를 이용해 탈곡하는 체험을 하고 있다.

이건 왜 이렇게 달아요. 도서관 옥상텃밭에서 기른 토마토하고는 맛이 너무 달라.” 여기저기 감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까만 땅콩도 있어요? 얼핏 보면 썩은 줄 알겠네. 하하” 입이 즐거운 체험은 충북 괴산 지역의 토종호박으로 죽을 쑤면서 절정에 달했다. 죽에 옥수수알갱이와 팔이 들어가면서 입맛을 돋우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도 잊은 채 호박죽을 먹는 손이 바빠졌다. 아이들은 이제까지 잡았던 방아깨비, 여치, 메뚜기, 개구리, 잠자리 등을 놓아주며 내년을 기약했다.

글 이방현 기자



토종호박으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



생태논의 동봉에는 미꾸라지와 참붕어 등이 살고 있다.



지난 9월 27일 충북 괴산군 불정면에 위치한 흙살림 토종연구소에서는 도농교류체험으로 벼베기 행사가 진행됐다.

흙살림 도서 할인판매

미국의 유기농업을 꽃피운 로데일의 역사를 우리나라 유기농업박사 1호인 최병철 박사가 공들여 번역했습니다. 농업의 본질은 생명이며, 그 근원은 흙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흙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한 흙살림 회원분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Pay Dirt (생명농법 원리) | 농업성전 | 흙과 건강
 각 권 원상가 20,000원 → 13,000원 (배송비 포함)
 입금처 농협 323-01-059315 예금주 사단법인 흙살림연구소

흙살림연구소 유기농업총서 시리즈 판매중

흙살림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과정이 흙살림 유기농업총서에 담겨 있습니다. 유기농업총서를 통해 흙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길을 모색해보세요.

농사짓는 즐거움 | 유기농업이 희망이다 | 참농부
 흙을 살리는 기쁨, 땅 위에 사는 기쁨 | 한방영양학 개론
 유기재배 이것만은 알아야한다 | 이 땅에서 농업을 하는 의미
 *흙살림 회원은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구입 및 문의사항
 사무국 도서 담당 043-833-5004

유기농산물은 영양가 높고 맛이 좋다

IFOAM 실행지침 중 제품 품질

IFOAM(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의 '농업과 가치사슬을 위한 최선의 실행 지침'의 'D. 문화적 차원 : 영양, 혁신, 리더십, 그리고 이타심이 가능하다. 공동체는 안정되고 번성한다.'의 3번째 항목을 소개하는데, 지면상 실행사례는 제외했다.

3. 제품 품질 가치와 가이드라인

● 유기농업과 유기농업이 키우는 건강한 토양은 영양가가 높고 맛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한다. 이러한 이득은 시장에서 강하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며, 인간의 건강과 고용에 기여한다.

● 가공농산물은 천년동안 진화했다. 이 필수적인 인간 활동에 대한 전통적이고 역사적이며 고고학적인 동기는 다음을 포함한다:

○ 건조, 훈제, 절일 및 피클링과 같은 방법을 포함하여 다음 수확까지 유용한 형태로 식품을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것.

○ 생산물을 영양적으로 더욱 가치 있거나 안정한 것으로 변형시키는 것과 배양이나 발효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영양적 혹은 감각적 측면을

갖게 하는 것.

○ 분쇄, 절단, 혹은 기타 물리적 처리 및 가열/조리에 의해 먹기 쉽게 만들기 위해 생산물의 형태를 바꾸는 것.

○ 농축, 압축, 선별 및 여과와 같이 온전한 식품의 일부를 분리 또는 추출하는 것.

● 식품과 건강에 대한 이해의 변화로 사람들이 특정 종류 제품의 소비를 절제하도록 제의할 수는 있지만, 그런 제품들이 아직 특정 그룹의 문화적 동질성을 영속시키는 데 있어 가지는 중요성을 무력화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문화와 삶의 질의 표지로서 식품의 신뢰성을 중시한다.

● 문화적 전통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또한 세계적으로 식사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특히 우리는 정제된 설탕, 탄수화물 및 기타 미네랄이 제거되거나 가공도가 높은 식품들의 소비 증가를 염려한다. 이것들은 영양실조, 비만 및 제2형 당뇨병과 같은 광범위한 문제를 야기한다.

● 수익과 편리성을 추구하거나 상업적으로 유효한 다른 제품을 모방하기 위해 방부제 및 현대적인 합성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유기농업의 원칙과 부



합하지 않는다.

● 과거 60~70년 이상 역사적으로 혹은 전통적으로 사용된 식품가공 첨가제는 그들 식품을 개발한 문화를 반영한다. 우리는 현대 기술이 최종 생산물, 환경 및 제품 성분에 있어 전통적인 첨가제와 동등하거나 뛰어난 결과를 가진 새로운 재료를 개발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예를 들면 (여과된 나뭇재 대신 가성가리나 가성소다와 같은) 보다 순수한 형태의 가성 물질 또는 순수 분리된 미생물 균주 등이다.

● 시장에 더 많은 보다 건강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사회적 이득이다. 전통적인 방법은 문화적 동질성과 다양성을 지지하며, 문화적 지식을 유지

한다.

○ 유기농업은 합성농약의 사용을 금지하기 때문에 원료 제품에 독의 잔류 위험은 본래 적다.

● 농장이나 식품가공 작업자들이 잘 훈련되고, 동기 부여가 높고, 존중될 때 제품들은 보다 안전할 것이다. 농장과 가공 단위에서 주의 깊은 생산은 병원균과 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제품의 오염을 피한다. 식량안전 위험은 문제의 근원을 최소화하는 예방적 실행에 의해 감소된다.

● 없던 특성을 제공하기 위해 허위적으로 조성되거나 이물질이 섞인 제품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 능력을 훼손한다.

● 자연은 주요 상품 시장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보다 많은 사용가능한 제품들을 공급한다. 유효한 원료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확장하고 그것들의 생산을 장려하는 것은 거래와 농장에서 다양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농업 기반을 넓힐 것이다. 시장을 소수의 작물이나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가능성이 있는 합성 물질로 만든 제품으로 채우는 것은 이런 이득에 반대로 작용한다.

● 소비자 습관과 구매 패턴을 바꾸려는 노력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이 정보는 위에 기술된 수단들을 통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글 최관호 휴살림연구위원장

청정 흙

유기농법으로 되찾고 싶은 건강한 흙

아침이슬을 머금은 숲속의 풀밭(草地)에서 흙 생명체는 오늘도 평상의 일과를 시작한다. 따사로운 햇살과 상쾌한 공기가 잡시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게 한다. 광물질과 유기물이 안정적으로 구성된 자연초지의 흙은 생물의 광합성산물인 유기물을 최대 생산하여 광물이 주체인 흙의 7%(容積重)를 점유한다. 3상(고상, 액상, 기상)을 고루 알맞게 구성하고 유기물의 내용은 부식(腐植)이 85%(乾燥重)로 압도적이고 풀뿌리는 10%, 생물군(soil flora, fauna)인 미소동물과 미생물은 각각 5%에 달해 생물상으로 봐도 양질의 흙임을 알게 한다. 초지 흙의 지표가 되는 미생물군(群)은 사상균과 조류(40%)와 방선균과 세균(40%)류가 주류를 점하고 동물군에 속하는 지렁이(12%)와 기타 미소동물(8%)은 열세이나 그 작용은 미생물에 못지않다. 유기물

의 질소성분은 광물에서 얻지 못하는 유일한 먹이(營養分)로 생태계순환의 기본물질이다. 풍부한 유기물은 흙의 생산력에 중요하게 작용하여 그 함량이 높아질수록 흙색이 흑색에 가까워지면서 태양열(heat)을 많이 흡수하게 되고 이른 봄에서 늦가을까지 지온을 올려 식물생육을 촉진하게 한다. 미생물의 활동이 길어지고 왕성해 짐에 따라 흙생태계가 개선되고 안정화한다. 매년 많은 양의 생물유체가 쌓이고 분해가 적절하게 진행되어 부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질소성분을 필두로 황과 인산 등의 필수 다량원소와 많은 종류의 미량원소가 흙으로 환원한다. 유기물은 구조를 발달시켜 토괴(團粒)가 형성되고 수많은 응집하의 생성은 염기교환용량을 증가시켜 보수력과 보비력이 향상된다. 이상과 같은 자연초지의 흙성질은 생태계가 건강하

고 안전하게 유지되는 상징적인 목표이다. 숲과 풀에서는 유기체가 지면을 덮게(被覆)되고 여름철 쏟아지는 폭우의 강력한 타격(energy)에서 흙을 보호한다. 수 십 억년을 거쳐 오면서 강우로부터 흙이 보전된 것은 이 같은 생물의 자연피복의 힘이다. 숲에서는 강우타격 에너지를 일차적으로 생물체가 막게 되고 힘이 빠진 빗물이 지면에 닿는다. 생물의 분해성물인 부식과 분비물로 응집 생성된 단립은 흐르는 물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흙 입자의 유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미세지형

과 자연수계가 형성되는 근간이다. 큰 비가 내리더라도 황토물대신 언제나 맑은 물을 강으로 토해내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조화롭게 연면히 유지된 자연생태계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 열대우림을 비롯한 쓸 만한 나무가 들어선 숲은 가차 없는 남벌로 벌거숭이(裸地)농지가 되면서 비옥한 표토가 유실되어 생물의 활동이 미약해지고 종당에는 쇠퇴화의 길을 밟게 한다. 열대원시림을 위시하여 산림의 자연생태계에서의 생물은 흙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면서 맑고

깨끗한(淸淨)흙을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다. 이런 건강한 흙은 일반 경작지에서는 찾을 길이 없고 이를 실현해 보려는 열망에서 유기농법이 희망이 된 것이다. 중금속과 미세먼지로 오염 되지 않아 언제나 가을하늘과 같은 푸르고 신선한 공기와 함께 아름다운 골짜기와 개울(錦繡山川)을 휘돌아 정기를 품은 청계수가 흘러넘치는 흙(理想郷)을 찾아서 생물은 생명의 환희를 만끽할 안정된 생태계의 이상적인 청정흙에 안주하고 싶은 것이다.
글 신계성 휴살림 고문

발행소 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136(영천리 528) | 발행인·편집인 이태근 | 등록번호 충북라010-25(1998년 9월 3일) 본부 (367-911)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136(영천리 528)-전화 043)833-8179-전송 043)833-2959 오창사무소 (363-885)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85(각리 642-6) 오창벤처단지 안-전화 043)216-8179-전송 043)216-2959 | 청주센터 (363-923)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운동리길 93-13-전화 043)212-0935-전송 043)216-0936 | 토종연구소 (367-912)충북 괴산군 불정면 쇠실로 286-138(삼방리 186-1)-전화 043)833-5004-전송 043)833-5007

‘흙이 주는 선물’ 세종 매장 개장

“아이들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 좋다” 인기

“와! 이 포도 정말 달아요.” “이렇게 맛있는 군밤이 시식용이에요? 그냥 파세요.”

지난 9월 2일 세종시 노을3로에 (주)오가닉 기반의 ‘흙이 주는 선물’ 세종시 매장이 개장됐다. 친환경농식품은 물론 친환경 생활용품 및 도시농자재 등을 공급·판매하는 이번 매장 개장식엔 평소 친환경식품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이 모여들었다.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려고 대전까지 나갔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매장이 생겨서 좋다”며 ‘흙이 주는 선물’이 유

통하고 있는 농산물이 믿음직하고 품격이 따져보기도 했다. 아이들 등에 업은 한 주부는 “농약을 안줬다니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겠네요”라며 과일을 한 바구니 담아갔다. 다른 주부는 “조금 전에 표고버섯을 사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값싸고 질이 좋아 다시 사러 왔어요”라며 겸연쩍은 미소를 지어보였다. 한편 행사용으로 내놓은 군밤과 흙살림 토종농장에서 갓 따온 가지도 소비자들의 입과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난 9월 2일 세종시 노을3로에서 ‘흙이 주는 선물’ 세종 매장이 개장식을 가졌다.




지난 8월 30일 광진정보도서관 옥상 텃밭에서는 수확 나눔잔치가 벌어졌다.

서울 광진구 모종나눔 행사

지난 8월 30일 서울시 광진구 광진정보도서관에서는 모종 나눔행사가 치러졌다. 이번 행사는 한국마사회가 후원하고 흙살림이 주최한 것으로 ‘책은 품은 텃밭’의 수확 나눔 잔치와 함께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는 광진정보도서관 옥상텃밭에서 수확한 농산물로 전을 부치고, 고구마도 구워서 나눠 먹는 등 광진구민들


의 소박한 잔치마당이었다. 이와 함께 흙살림이 제공한 배추 모종을 김장을 담글 때 이 옷과 함께 나누기 위해 도서관 옥상 텃밭에 정식하기도 했다. 이태근 흙살림 회장은 인사말에서 “작년 풀과 나무가 뒤섞인 곳을 치워내고 흙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멋진 텃밭이 만들어졌다”며 “옥상텃밭을 통해 아이들이 변화하고 환

경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현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흙을 모르면 추억거리가 없다. 흙을 만져야 아이들 마음의 상상력을 기를 수 있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옥상 텃밭을 짓고 있는 채호병 할아버지는 “작물의 푸름이 더해지는 것을 통해 희망도 커져갔다”며 화답했다.




튼튼칼

- 수용성 칼슘공급 칼슘 17%
- 무농약재배까지



흙살림 라임


- 서스펜션 유기농 칼슘 35%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품
- 공시-4-1-25



잘잡아

- 유기농자재목록공시
- 공시-3-5-15
- 토양살충용 입상제
- 식물추출물 함유. 기계 살포 가능
- 식물 뿌리 피해 해충에 효과적

벼도열병, 딸기 흰가루병,
구기자흰가루병 잡아라!
예방과 방제를
검비한 작물 보호제,
입살림!



흙살림 미생물 배양기술과 농촌 진흥청 특허 미생물
(특허번호 100407074)로 흙과 환경에 유익한 제품입니다.
*등록번호 : 37-살균-1 *품목명 : 바실러스서브틸리스 제이케이케이238 액상제

정밀하고 신속한 휴살림 안전성분석안내 [공인분석기관]

[휴살림부설연구소]는 친환경 농업 및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독보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분석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분석항목	*분석비(원)	분석기간(일)
잔류농약 (농산물 및 토양)	단성분	1 항목	110,000
	다성분	102 항목	140,000
		177 항목	220,000
		245 항목	280,000
유기질 비료 및 퇴비	유기물, 중금속, 발아율 등 1개 항목	4,000~40,000	5~14
토양	이화학(시비처방서 포함)	질소 등 9항목	30,000
	중금속	카드뮴 등 유해 8성분	88,000
GMO	콩	150,000	3~10
	옥수수 및 혼합품(옥수수+콩)	200,000	
쌀·현미 품종검사	정성	맷쌀	100,000
		찹쌀	300,000
	정량	맷쌀	200,000
미생물	일반미생물 1종	20,000	7~14
	병원성미생물 1종	30,000	

*분석비 : 부가세 별도

협약을 통한 분석비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분석 · 잔류농약 043-292-8179(담당: 홍정옥, 박인영) · 중금속 및 퇴비 070-4035-4958(담당: 강수진)
상담 · 일반 및 병원성미생물 070-4035-4658(담당: 김준근) · GMO, 쌀현미품종, 토양이화학 070-4035-4958(담당: 강수진)

휴살림 미생물배양 배지종균 공급시작

제품구성

- 휴살림 바실러스 메디움 및 종균
- 휴살림 유산균 메디움 및 종균
- 휴살림 효모 메디움 및 종균
- 휴살림 광합성균 메디움 및 종균
- 휴살림 방선균 메디움 및 종균

제품 특징 및 효과

- 20년간 미생물 연구와 개발로 탄생한 전문배지 및 종균 배양 세트
- 미생물 배양에 최적화 된 균일하고 안정된 배지
- 고밀도 배양이 가능한 배지 및 종균 공급
- 다량의 효소와 생리활성물질 분비

배양문의

- 양병근 박사 070-4035-4658



생산자·소비자 참가형 보증제도 PGS

NGO 단체를 매개로 규정·벌칙 등 합의

최근 한 공중파 방송에서 일부 유기농업의 잘못된 행태를 알리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현재의 인증제도의 폐해를 다루고 있었다. 이에 홀살림에서는 지금과 같은 제3자 인증제도가 아닌 다른 방식의 인증 제도를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올해 홀살림을 방문했던 홀트플라이쉬(Konrad Hauptfleisch) IFOAM(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아카데미 원장이 소개한 PGS라는 제도를 살펴본다.

PGS(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가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3자 인증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보충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세계각국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다.

현재 3자 인증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인증의 비용이 비싸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소농과 같이 소득구조가 적은 농민들은 인증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서류의 관리 및 영농일지의 작성 등이 복잡하고 어려워 나이 많은 농민들이 참가하기가 쉽지 않다.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인증비용이 외국에서 수입하여 온 것으로 국내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기준이 불명확하고 때론 비이성적인 규정이 제정되어 농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기도 한다. 이로 인해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믿음을 주기가 힘들어져서 결국 생산자와 생산자 간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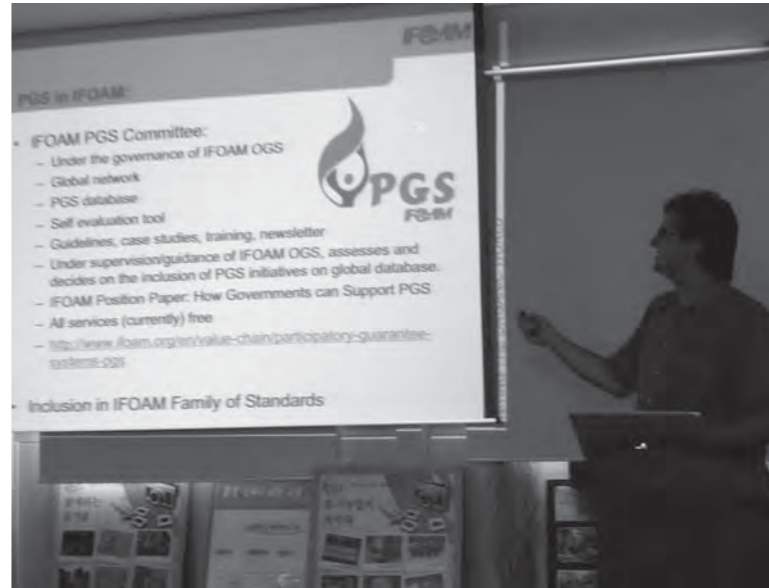
현재 세계의 많은 PGS 단체들을 살펴보면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지역 생산자,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 이를 연결시

켜주는 NGO단체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NGO단체는 PGS의 큰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와 생산자의 만남과 소통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규정과 벌칙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규정과 벌규를 만들 때는 PGS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생산 역시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기호와 의견도 반영된다. 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각각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

PGS의 좋은 점도 여럿 있지만 단점 역시 존재한다. 첫 번째로 PGS를 실행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지역 문화와 의식상태에 따라서 성공할 확률이 달라진다. 그리고 국가의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PGS에 참가하는 인원들에게 많은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참석자들의 활발한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 PGS는 전 세계적으로 20여개 국가에서 약 2만 농가가 실시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국가차원에서 PGS를 실시하고 있고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홀살림을 방문했던 홀트플라이쉬(Konrad Hauptfleisch) IFOAM(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아카데미 원장이 PGS라는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인증

저농약농산물 인증제도 폐지 및 유효기간

저농약농산물 인증제도 폐지 및 인증품의 유효기간을 안내드립니다.

[친환경농어업육성법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침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1항과 관련하여 저농약 농산물 인증제도가 2015.12.31. 이후 폐지됨에 따라서 2014.1.1.부터 갱신교부되는 저농약농산물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법적기한이

2014.00.00. ~ 2015.12.31.로 표기되어 교부되며, 2015년에 저농약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하여도 판매기간이 2015.12.31.까지만 유효합니다. 2015.12.31. 이후에는 일체 저농약농산물 표시를 해서 인증품을 출하할 수 없습니다. (단, 2015.12.31. 이전에 출하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GAP인증을 준비하시는 농가분들은 GAP 인증기관(현재 전국적으로 46개소가 지정돼 있음)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홈페이지 www.gap.go.kr

<작물 수확기 관리 주의사항> 이제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들어 수확이 시작됩니다. 친환경

농산물 관리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더욱 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1. 완충지를 설정한 경우 완충지 수확물 구분관리(별도 저장 및 출하)
- 2. 수확장비, 건조, 도정설비 구분관리 또는 철저한 청소를

통한 비인증품 혼입방지
3. 수확량 확인(개수로 판매하는 것도 kg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대표적으로 무게를 달아볼 것),
2015.1.10.까지 2014년 한 해 수확량을 집계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경영관련 자료 작성
문의 : 한국농식품인증원 043-212-0934

작물 충해 관리용 자재



각종 해충을 방제합니다.

500ml

파워진달래

목록공시등재번호 공시-3-2-5

- 천연식물추출물로 인축독성에 안전
- 진딧물, 응애방제에 효과적



500ml

잘들어

목록등재번호 공시-3-5-7

- 천연식물 추출물로 인축독성에 안전
- 각종 해충에 대해 적용 가능



1L

청달래

목록등재번호 공시-3-5-1

- BT제재로 안전
- 나방 및 나비 유충 등에 효과적



작물 병해 관리용 자재

병이 와도 끄떡 없도록!

10L

1L

탄탄탄

목록등재번호 공시-4-2-22

- 방선균에 의한 항생효과
- 발생 전 처리시 효과 증대



500ml

황수화제

목록등재번호 공시-4-2-25

- 천연 향균물질인 황을 간편하게 사용
- 흰가루병에 강력한 효과



야생화 단지 조성하면 진딧물 감소

FiBL 연구소 - 유기재배 과수 재배법<2>

■ 자연 공간과 서식지를 융합함으로써 과수원 자경 메카니즘 만들기

-환경적으로 건전한 과일 생산은 사용된 병충해 조절 물질의 양과 종류, 과수원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뿐만 아니라 농장의 자연 공간 개발, 사용된 재료의 선택에 의해 평가된다.

식물 위생의 문제를 통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각각의 문제에 복합적인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수원의 자연적인 조정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측정요소를 점검하는 것은 중요하다. 생물다양성이 커질수록 과수원의 환경은 더 안정적이게 된다. 게다가 자연공간으로 가득한 과수원은 멋진 전경을 제공하고 농장과 그 과일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

도록 한다. 서식지와 자연 공간은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과수원과 그 주위를 융합시킨다.

■ 목초지 - 목초지는 비료가 필요 없고 1년에 1~2번 재초한다.

▲ 장점 -수분시키는 벌레들이 많아지게 한다.

-가축을 위한 목초지 형성.
-야생꽃밭의 대안책을 제공.

▲ 단점 -설치류를 증가시킨다. 하지만 야생화 밀집지보다는 초목지에서 설치류를 컨트롤하기 쉽다.

▲ 어디에 위치해야 하나? -예초기가 사용될수 있는 지역

▲ 언제 만들어져야하나? -존재하는 필드는 연중 언제

든지 초목지로 변환될 수 있다.

-만약 심을 일이 발생하면 봄에 심어야한다.

▲ 어떻게 목초지가 만들어지나?

-필드에 비료를 없애고 예초작업을 멈춘다.

-새싹을 가지고 드문드문 심는다. 그리고 지역 야생화 씨를 뿌리면 빠른 변화에 도움이 된다.

▲ 무슨 관리가 필요한가? -일년에 두 번씩 예초를 한다

▲ 노트 -다양한 종들의 목초지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여러 해가 걸릴 것이다.

■ 야생화 밀집지역

토착의 야생화가 뿌려진 지대는 진딧물의 발생을 급격하게 낮추는 수분매개체들을 증가시킨다. 만약 설치류들이 너무 많아진다면 목초지가 가능한 대안법이다.

▲ 장점

-진딧물 포식자와 같은 수분매개체를 증가시킨다. 진딧물의 공격은 과수원 25m 안에 야생화 밀집지역이 있으면 줄어든다.

▲ 단점

-설치류가 매우 좋아 한다. 제초가 많지 않아서 제어 기능이 효과적이지 않다.

▲ 어디에 위치해야 하나?

-기계가 접근할 수 있는 지역만.

-3~5m 넓이의 지대로 가능하다면 나무의 열과 평행시킨다.

-만약 초목지보다 야생화 밀집지역이 더 좋다면 설치류 포식자가 야생화 밀집지역과 나무들 사이에 정착되어야 한다.

▲ 언제 만들어져야 하나?

-4월 말 전인 봄에 씨를 뿌린다. 가을에 뿌려진 씨들은 봄에 자란 잡초에 의해 압도된다.

▲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수확 살포 방식의 경운기 또는 손으로 심는다. 씨들을 잘 섞어라.

-입증된 씨앗 블렌더를 사용하라

▲ 무슨 관리가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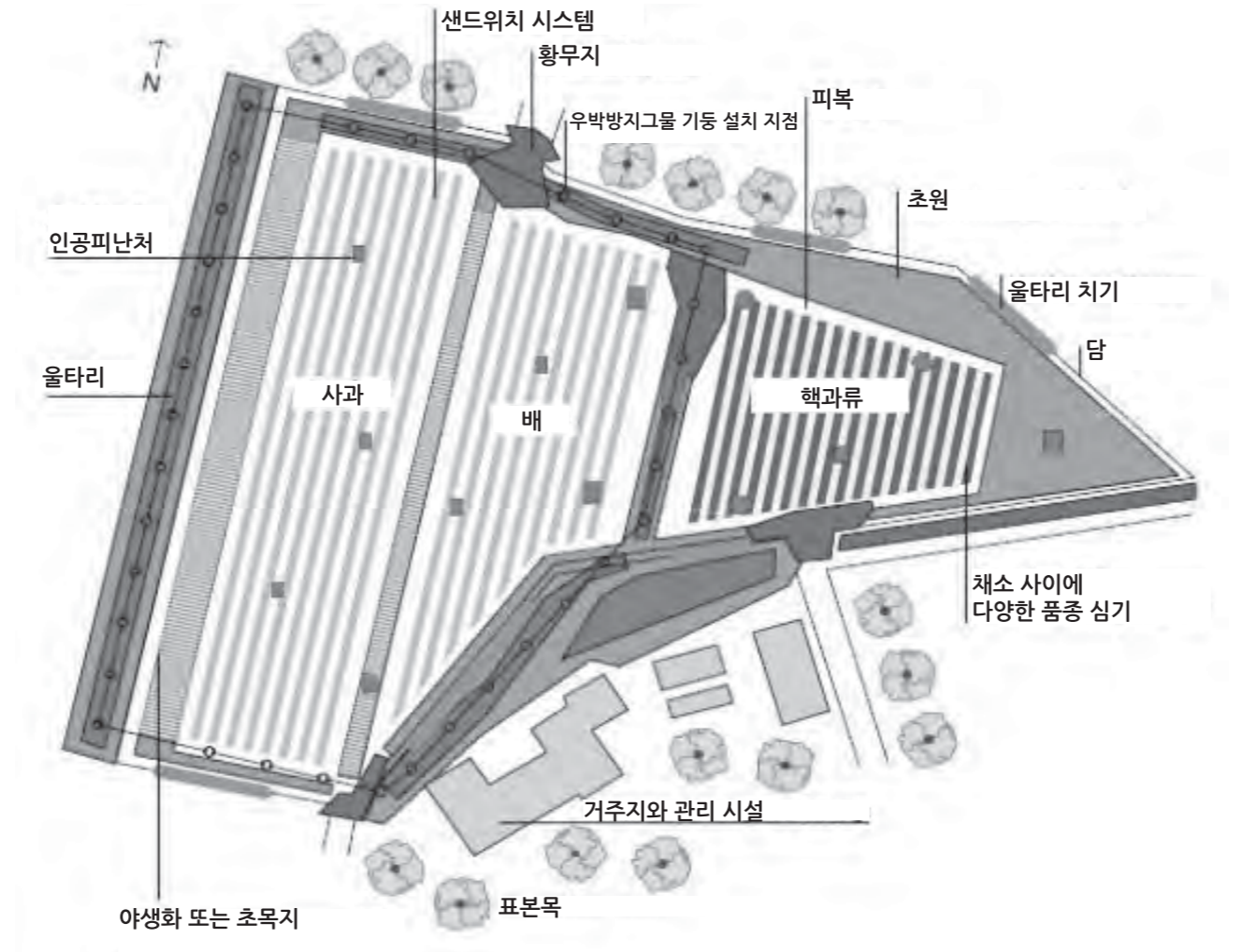
-만약 야생화가 잘 발아되지 않거나 일년생 잡초가 완전하게 그 지역을 장악했다면 전체적으로 잘라준다.

-매년 세로로 그 지역의 반을 예초한다. 잘라낸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10월이나 11월에 또는 2월 중순에서 3월까지 제초한다.

-설치류 통제 측정을 엄격하게 실행하라(특히 예초 후).

-비료나 병충해 농약을 사용하지 마라.

-특히 소리쟁이와 같은 문제가 많은 잡초를 뽑아라. 만약 야생화 밀집지역에 풀들이 2~4년 후까지도 지배한다면 로타리 씨레를 이용하거나 농기구를 이용하여 흙을 파쇄해야 한다.



“유기농업은 돈 보다 생명이 먼저다”

유기농업 원로에게 듣는다⑧ 박기식 (충북 영동)

욕심 버리고 자연의 순리 따라야 지속 가능

“돈 보다 먼저 사람을 생각하라.”
충북 영동에서 만난 박기식(73) 선생은 지난 8월 14일 방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부터 꺼내셨다. 삶의 우선가치를 명확히 해야지만 사람으로서 나아가야 할 도(道)를 잃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선생은 교황의 말씀 중 사람이란 바로 생명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실천하는 것 중의 하나가 유기농업을 강조한다.

■ 유기농은 생명운동
박기식 선생은 1970년대 가톨릭 농민회 활동을 하면서 정치와 관련된 투쟁과 집회 등에 많이 참석했다. 1989년도엔 영동군수와의 협상을 통해 고추 전량 수매를 주도하던 중 억울하게 옥살이를 지내기도 했다. 하지만 1년 6개월 간의 옥살이 중 면회를 온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운동을 알게 됐다. 바로 생명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1970년대 녹색혁명 시절 이후로 통일벼와 화학비료, 화학농약 등을 통해 다수확을 거두긴 했지만 사람도 땅도 죽어가면서 농업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생겨났다. 더군다나 당시 충북 음성에 살고 있던 고 최재명 선생(우렁이 농법 창안)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생명농법의 기폭제가 됐다.

■ 거듭되는 실패
“생명농법이라는 것이 결국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해오던 농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인줄 알았지.” 박 선생은 초기에 친환경 농법을 전통농법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별래도 일일이 손으로 다 잡았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 방법만으로는 수확량도 적고 생산물의 모양새도 좋지 않아 생계가 어려울 정도였다. 생명농법에 대한 당위성만 확고했고, 유기농업과 초생재배가 좋다는 말만 떠돌았지 구체적인 실천방법이나 기술이 갖춰져 있지 않아 실패를 거듭하던 시기였다.

“바로 이 부분이 흠살림이 탄생한 계기라고 봐. 농업의 과학화를 통해서 수확도 올리고 모양

도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던 거지. 흠살림에서 퇴비와 미생물 자제가 나오면서 위안을 많이 받았어.”
■ 순리를 따르라
친환경농법을 하던 초기엔 교육도 많이 받았다. 그중 박 선생을 깨우치게 만든 한마디가 있다고 한다. “일본인 강사였는데 이런 말을 했지. ‘모든 미생물이 가장 왕성할 때는 빛꽃 필 무렵이다.’ 이 말을 듣고 ‘아하’하며 무릎을 쳤어.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대로 진행된다는 뜻이라는 걸 안 거지.”

박 선생의 표현대로라면 이 우주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한다. 밭도 그 자체로 미생물 공장이다. 사람 욕심껏 수확을 올리려고 농약과 제초제를 뿌려대다보니 미생물이 사라진 것이다. 자연 그대로 두면 미생물 천지가 되고, 미생물을 도대히 먹이사슬이 살아나면서 지렁이가 많아진다. 이 지렁이를 먹여 두더지가 나타나면서 농작물 피해가 생기지만 이것도 머지않아 뱀이 나타나 해결된다. 유기농이란 자연의 순리를 따라 농사를 짓는 것이며 이렇게 먹이사슬을 살림으로써 지속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 다 함께 살자
“만약 감나무를 심었다고 쳐. 그런데 자연에는 감나무만 유리한 어떤 법이라는 건 없어. 나도 살고 너도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박 선생은 품도 원수로 보지 않는다. 풀이 있어야 먹이그물도 튼튼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풀과 함께 농사짓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가짜가 나오는데야. 편하게 가보려고. 하지만 유기농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근본을 알고 투철한 마음을 갖아야 돼. 그렇지 않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지.” 박 선생은 과수에서 열매를 얻는 것도 수탈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것을 수확하고 그만큼 나무에게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농사꾼과 장사꾼
박 선생은 유기농의 기본 자세를 욕심을 버리는 것으로 본다. 관행농업이 포도 1그루당



박기식 선생은 포도 수확이 다 끝난 이 즈음엔 포도에게 양분을 돌려주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신다.

40~70송이를 수확한다면 유기농은 25~30송이밖에 나오지 않는 걸 인정해야 유기농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참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면 거짓 유기농을 하게 된다는 것이 박 선생의 생각이다. 사람 먹을 만큼만 수확하고 만족하면서 부를 꿈꾸지 않는다면 더불어 사는 행복감을 누린다는 것이다. 박 선생은 자신의 이런 마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바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과 행복감에 신바람난다고 한다. “지금의 유기농업은 기업화가 되면서 남을 배려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잊어버렸어. 대신 이윤을 향해서 바빠 나아가고 있는 모양새야. 농사꾼이 아니라 장사꾼인 거지. 이제 잠시 뒤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느릿느릿 걸어갔으면 좋겠어.” 글 이방현 기자



서리 방지 기능을 하고 있는 포도밭의 원두막.



포도 줄기를 잘랐는데도 옆에 가지를 치면서 수확이 가능해졌다.

▲ 박기식 선생의 초생재배법

박기식 선생은 초생재배가 좋다는 말을 듣고서 포도밭에 풀을 키웠다. 하지만 풀이 왜 좋고 또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어렴풋이 알게 됐다. 바로 풀에게 빼앗긴 영양과 수분 때문에 포도가 잘 자라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다. 즉 포도나무와

풀을 경쟁상태로 만들어서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 선생은 한로 즈음에 무항생제 계분을 밭에 뿌리고 그 위에 호밀씨를 뿌린 후 로터리를 친다. 봄에 포도나무에 싹이 날 때쯤 겨울 내내 자란 호밀과 풀을 깎아서 부직포를 씌운다. 부직포를 씌우지 않았을 땐 1년에 8번 정도 예초를 했다. 이것이 양분과 수분을 놓고 풀과 포도나무가 경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생태마을은 유기농업의 성공적 롤모델

세계 유기농업 리더에게 듣는다<4> 메논 (인도 ICCOA 사무총장)

이번달 휴살림 신문에서는 인도의 생태마을 운동과 유기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현재 인도 ICCOA(International Competence Center for Organic Agriculture) 사무총장이면서 IFOAM(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Asia 이사이기도 한 Manoj Menon 씨로부터 인도의 마을단위 유기농업 운동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편집자주

1. 먼저 간단한 자기 소개와 어떻게 인도 유기농업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2004년부터 사무총장으로 ICCOA(International Competence Center for Organic Agriculture)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과학대를 졸업하고 이후 MBA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20여년 동안 유기농업, 지속가능농업, 생태마을, 지역생활 등을 바탕으로 향신료, 원예, 버섯, 수도작을 포함한 인도 내에 다양한 작물 분야에서 농업적, 원예적으로 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2004년 이전 10년 동안 농업프로젝트를 가지고 일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하여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유기농업운동과 ICCOA에 참가한 바로 그때입니다. 2006년 저는 그곳의 CEO가 되었고 인도 중앙정부와 친밀하게 일할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후 인도 내의 다른 지방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기농업의 정책형성에 관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ICCOA는 인도의 12개의 지방에서 유기농업, 유기농업사업, 시장개발에 관한 큰 프로젝트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2005년부터 구성된 소위 인도 유기농 무역박람회라 불리는 유기농사업에 관한 무역박람회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람회는 2009년 이후로 BIOFACH라는 독일의 Nurnberg Messe 와 인도 합작의 유기농무역박람회가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저는 퍼블, 아이폼, 년별그, 유엔, 아리마 등과 함께 많은 과제와 프로젝트를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인도의 첫번째 마케팅 연구논문인 '인도 유기농산물 마케팅'과 가장 최근의 '인도 도심센터에서 유기농 마케팅'의 공동저자이기도 합니다. 국내의 컨퍼런스에서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2012년 아이폼아시아가 시작한 이래로 아이폼아시아의 임

시위원회 멤버로 있었습니다. 2013년 6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이사회 멤버로 선출되었습니다.

2. ICCOA는 아시아에서 생태마을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아미프 아시아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인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태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ICCOA는 '지속가능한 생태마을'이라는 특별한 컨셉을 2012년에 시작했습니다. 첫번째 프로젝트는 Nagaland라는 인도 북동쪽 지역의 산간마을에서 시작했습니다. 생태마을은 지속가능하면서 유기농과 지역 개발의 포괄적인 형태로, 개개인의 농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마을에 좀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생태마을은 매우 성공적인 유기농업의 롤모델이 되었으며 현재 ICCOA는 Nagaland에서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태마을은 지속가능성, 공동체 개발, 환경적인 성소, 그리고 농민과 마을에 경제적 이득을 안겨주는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생태마을은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적자원의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합니다.

Nagaland에서 프로젝트는 2년 안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곳은 1200ha에 650 농가 이상이 참여해 이익을 나누어 가집니다. 그 프로젝트의 핵심축은 Molvom이라는 부족마을이며 또한 위성도시로써 3개의 다른 마을도 포함합니다.

3. 생태마을 만들기에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주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 목적은 단지 유기농업과 지속가능 농업을 함으로써 현재 단계



메논 ICCOA사무총장(가운데)이 유기농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다 2배 이상의 수입을 3년 안에 번다는 것입니다.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는 농민들 평균 삶의 수준이 여전히 낮고 그들의 순이익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유기농업과 지속

경제적 이득 안겨주는 생태적 마을 모델 지속가능성, 공동체 개발, 환경적 성소 등 유기농업을 알리고 확장하는데 큰 도움

가능한 농업을 통해 100~150% 정도 그들의 수입을 증가시킬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농민의 가족, 그들의 마을, 환경에 도움을 주고 이와 함께 지구 그 자체로도 도움이 됩니다.

생태마을 모델은 유기농업을 보여주는 좋은 쇼케이스이며 유기농업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역의 음식, 에너지의 안정을 강화시킵니다. 지역 생태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지역농민들의 생계를 향상시키는 데 적합하고 자연친화적이며 자원보존적 기술에 적용하도록 초점을 맞춰야합니다.

4. 우리는 생태마을 만들기 프로

젝트가 사적-공적 파트너십의 형성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유기농 프로젝트를 지역정부와 같이 진행해본적이 있나요?

ICCOA는 지역정부와 친밀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피라미드의 가장 아랫부분인 농민들과 가장 위인 정책 사이에서 다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부는 농민들을 지원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그들은 통합적이지 않고, 개개인은 농민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그들이 능력을 개발하거나 연결하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생태마을이 생기게 된 계기입니다. 이 컨셉과 모델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시킵니다. 농업·원예·인증·축산·공동퇴비장·바이오가스·지역 일자리 창출·지역 가공공장, 그리고 특히 친환경농업연학 등입니다.

5. 한국과 인도의 유기농운동의 미래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유기농운동은 아시아에서 가장 구조적이고 다이나믹한 곳

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유기농업은 가장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인도는 580만 ha가 인증된 경작지이고 450만 ha가 야생지역입니다. 100만 농가보다 좀더 많은 농가가 관행농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에서의 농업시스템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나라가 밀접하게 일하고 서로를 좀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해 한국정책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소비자들은 한국의 국내시장 개발 과정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농민들은 인도 농업시스템에 존재하는 전통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강하고 경제적으로 부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과 인도 사이에서 유기농업에 관한 긴밀한 운동 관계가 생길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인도 북동쪽의 많은 지역은 한국 사람들과 매우 유사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벌써 한국 문화와 노래,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매료되어 있어 한국을 매우 친숙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동지역은 인도의 가장 큰 유기농업 운동의 중심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억새밭으로 아름다운 정원 만들기

텃밭 정원 가꾸기 <8>

겨울에도 다양한 질감으로 멋진 경관 구성

가을의 농촌경관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람에 일렁이는 억새밭의 풍경일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갈대나 억새류, 사초과 식물류의 종들에 대하여 그라스(Grass)로 통칭하여 부른다. 그라스는 국내외의 정원이나 공원에 많이 도입되고 있다.

그라스 종류는 사초과와 화본과 식물을 주종으로 이루어진다. 화려한 꽃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벼나 갈대처럼 호리호리한 줄기나 잎, 그리고 주로 가을에 피게 되는 꽃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모듬이나 집단적으로 자라는 모습 속에서 매우 강렬한 인상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그라스류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주변에서 매우 쉽게 구입하거나 번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원이나 도시공원 그리고 농촌의 빈 땅 주위를 활용, 그라스 경관을 조성하게 되면 이러한 식물들이 숙근초(여러해살이 식물)의 생태적인 특성으로 자라나게 되므로 해마다 포기나누기를 통하거나 자연적인 발아로 인해 매우 빠르게 확산되어가게 된다. 최근에는 다양한 종이 개발되어서 지피류의 형태로 키가 매우 낮은 종류부터 사람의 키를 뛰어넘는 갈대나 억새 종류까지 다양한 종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라스 종류는 주로 땅속줄기를 통하여 번식하게 되는데, 쉽게 번식한다는 장점도 있지

만 다른 식물과 함께 자라나는 공간에서는 주변 식물들의 생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라스류 재배에 있어서 다른 장점 중의 하나는 식재 초기 즉 식물이 자리를 잡기 전에 필요한 잡초관리를 제외하고는 유지관리가 비교적 쉽다는 것이다. 햇볕이 잘 드는 곳이면 땅이 단단하거나 척박한 토양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시비관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잘 자란다. 이듬해 봄 3, 4월경에는 새로운 손이 올라올 수 있도록 묵은 지상부 잎이나 줄기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이때 잘라낸 잎이나 꽃, 그리고 줄기는 실내인테리어 소재로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그라스 식물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겨울에도 정원이나 공원, 농촌마을 공간을 가득 채워준다는 데 있을 것이다. 다른 식물들의 지상부가 대부분 소멸된 이후에도 이듬해 봄까지 다양한 질감과 함께 번치 않는 천연의 아름다움을 제공해 준다. 도시의 정원처럼 제한된 공간에 식재할 경우에는 모아서 심기 보다는 독립적인 식재로 구성하여 줄기와 잎을 전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무껍질(Bark)이나 화산석(Lava Rock)등을 활용하여 그라스 주위를 덮어주는 멀칭(Mulching) 작업을 해 준다면 한층 더 정돈된 모습을 감상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잡초의 생장을 억제하여 정돈된 정원의



▲그라스를 활용해 아름답게 구성된 영국왕립식물원의 모습.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 조성된 그라스 실내 정원.

▼ 한국의 가든파이버 옥상정원. 이곳에도 그라스를 활용해 경관을 꾸었다.

모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라스 종류의 식물들은 경사지의 침식방지효과가 크므로 농촌주택을 만들고 나서 생기는 자투리 경사지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질감과 색상 은 물론 바람에 일렁이는 자연의 소리까지도 감상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맛볼 수 있다. 글 신인화 조경기술사 및 휴살림 도시농업자문위원



유기농 도시농업용 신제품

텃밭자재

상자텃밭용 유기배양토 작은텃밭 18L

유용미생물과 양질의 유기물 등으로 배합, 발효되어 가볍고 영양 가득! 작물재배에 알맞습니다.

그로우백 17~21L

임채소용과 열매채소용 두가지로, 손잡이와 물받침 구멍이 있어 실내 텃밭으로 안성맞춤!

상자 텃밭용 발효 퇴비 원예용 휴나라 1kg

유기농 원료로 부숙, 발효된 유기질 퇴비. 작물이 심어진 화분에 한 주먹씩 공급하면 충분합니다.

텃밭용 종합관리세트 텃밭사남매

병이 생겼을 때 - 일살림S
작물을 튼튼하게 - 일나라
작물에 생기를! - 비타엑스
벌레가 생겼을 때 - 잔달레그린

텃밭용 부숙 발효 퇴비 휴살림 균배양체 그린 10kg

작물에 천연양분, 미생물, 발효유기물을 동시에 공급! 작물 심기 10일 전에 살포하고 발을 만들어 줍니다. 5명 텃밭에 1~2포 정도 사용하면 돼요.

구입 및 문의사항 043-216-8179 | 쇼핑몰 <http://shop.heuksalim.com> | 입금처 농협 323-01-063992 | 예금주 (주)휴살림

“꾸러미 덕에 반찬 걱정 없어요”

블로그 살짝 엿보았더니 ...

농식품정보누리에서 진행했던 "밥상의 여왕을 찾아라" 가지 레시피 2등 선물로 홍살림 꾸러미에서 보내주는 ₩25,000 상당(2회)중 마지막 제품으로 우리 유기농 농식품 9월 2주차 제품들을 오늘 받았답니다. 홍살림 꾸러미의 9월 2주차 품목은 총 11가지입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농산물은 저희 가족들이 모두 좋아하는 채소들이더러구요^^

무농약 표고버섯은 살짝 물에 데쳐서 참기름과 멸간장을 넣고 무쳐 먹으면 정말 그 맛이 일품이랍니다^^ 집에 있는 북어채와 함께 시원한 해장국으로 안성맞춤인 무농약 콩나물도 있어요. 진공 포장으로 보내주셔서 제품이 파손이 되지 않아 정말 좋았답니다. 유기농 가시오이는 납작하게 썰어서 간장과 식초와 설탕에 버무려 저녁 식탁

에 올리면 없던 입맛도 돌게 하는 상큼한 오이무침이 된답니다. 유기농 쪽파는 내일 점심때 오징어와 냉동실의 굴을 넣어서 맛있는 파전 만들어 보아야겠어요!! 정말 싱싱한 유기농 미나리네요. 저녁에 바로 고구마묵무침에 넣어서 요리해 먹었는데,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이 정말 good!! 9월 2주차 홍살림 꾸러미 보너스로 보내주신 유기농 아욱!! 아욱은 채소 중 영양가가 높은 시금치 보다도 단백질이 2배, 지방이 3배, 칼슘이 2배나 많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 A의 함량이 아주 많고 비타민C, 무기질, 칼슘이 풍부하여 어린이 성장 발육 촉진에도 아주 효과적인 채소랍니다!! 시원한 아욱국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무농약 옥수수인데요, 저녁 식사 후 후식으로 삶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국내산 두부는 지난번 8월에 보내주신 홍살림 꾸러미 품목에도 있던 제품인데요, 된장국 끓일때 송송 썰어서 넣어서 먹었더니... 역시 국내산 콩세알 두부 완전 짱입니다!! 국내산 고구마묵, 도토리묵은 많이 먹어 보아도 고구마묵은 처음 먹어 보았는데

요, 저녁 식탁에 반찬으로 고구마묵무침 만들어 먹었습니다. 고구마묵은 채썰어서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놓고 콩나물과 미나리도 살짝 데쳐 두고 오이를 얇게 편 썰어서 볼에 깨소금과 진간장, 참기름, 설탕 조금 넣어서 버무려서 접시에 담아 내었는데요. 정말 너무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무항생제 유정란이랍니다. 계란찜이나 계란 프라이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8월에 보내주신 제품에 이어 9월 2주차 식품들도 너무나 풍성해서 이번 주 저희 집 식탁의 반찬 걱정은 완전 해결되었어요^^ 좋은 농식품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출처 블로그 <이쁜 비올라>

싱싱하니까 김밥 재료로도 좋아요

오늘은 회사로 신선한 채소들이 배달되어 왔다. 홍살림 채소꾸러미라는 상품인데 매주 유기농, 무농약과일과 채소를 산지에서 직접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번이 처음이고 혼자 사는 사람에게 적당한 한달에 2번, 가격은 3만원이다. 어찌보면 비싸고 또 어찌보면 적당한 가격

이다. 마트에 가서 유기농 채소 과일을 몇가지만 집어도 만원이 훌쩍 넘는데 이정도면 괜찮은 편이다. 나는 혼자 사니까 2주에 한 번이 적당하지만 4인 가족이라면 1주일에 한 번 배송받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직접 장을 보게 되면 먹지는 것들만 사게 되는데 이걸 랜덤으로 배송되느라 평소

에 사지 않는 채소를 받게 되면 어찌됐든 요리해서 먹게 된다. 이번에 배송된 물품은 국내산 두부, 무농약 깻잎, 무농약 피망, 무농약 새송이버섯, 무농약 새싹채소, 그리고 텀오에 애호박. 얼마전 TV에서 우리나라 유기농, 무농약 인증의 폐해에 대해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뭐... 이 세상에 안그런 제품이 어디있겠냐며 그냥 먹는다. 신선한 것이라면 믿고 먹을만하다. 확실히 싸구려 채소들과 비교했을 때 질이 다르다. 내 몸으로 들어가는 건데 너무 싼 것들만 사먹는건 아닌가 반성해본다. 싼 채소를 사면 사온 다음날부터 사들사들해진다. 금방 물러버리고 썩어버려서... 버리는게 더 많다. 개인적으로 채소나 음식물을 못먹게 돼서 버릴 때 아주 큰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채소를 많이 먹으려면 부지런해져야 한다. 며칠 까먹고 방치해두면 금방 상태가 나빠진다. 내 몸에 들어가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고마운 존재들이데... 내일 도시락으로 또 김밥을 싸다. 밥은 아주 조금 넣고 생채소들을 듬뿍 넣은 채소김밥, 도시락을 싸고 요리를 하면서 설거지가 엄청 늘어났고 있지만이 또한 부지런해지면 문제될 일은 없다. 출처 블로그 <디자이너의 4생활>

홍과 햇살이 주는 건강한 선물

홍살림꾸러미

친환경 제철 과일과 채소를 매주 집에서! 홍살림꾸러미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생활꾸러미

가장 기본이 되는 꾸러미입니다. 유기농·무농약 채소를 중심으로 무항생제 방사능방해, 우리콩 두부 및 국산 농산물로 만든 간식거리로 구성된 꾸러미입니다.
[월 4회 : 10만원, 월 2회 : 5만원]

채소꾸러미

채식인, 매주 신선채소를 원하는 분을 위한 꾸러미입니다. 생활꾸러미에서 계란이나 육가공, 수산가공품은 빼고 유기농·무농약 채소를 모았습니다.
[월 4회 : 6만원]

과일꾸러미

과일은 농약없이 기르기 힘들어 아무 때나 구할 수 있는 농산물이 아닙니다. 친환경 과일과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과일꾸러미입니다.
[월 2회 : 9만원, 월 1회 : 4만원]

홍살림꾸러미는 무엇이 좋은가요?

- 건강한 먹을거리, 직거래로 편안하게 받아요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중심으로 매주 품목을 달리하여 보내드립니다.
-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
밭에서는 농부가 안전하고, 밥상에서는 가족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생산과 소비의 나눔 공동체 실현
생산과 소비를 통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 매주 꾸러미가 기대돼요!
반복되던 식단에서 벗어나 꾸러미를 활용한 다양한 식단을 완성하세요.

꾸러미 구입문의 080-858-6262 | 010-9864-8007(문자상당가능) | shop.heuksalim.com

Copyright © VOOZY Co., Ltd. All rights reserved.

‘대지를 지키는 모임’ 유기농업 앞장

일본의 유기농업 현황 ⑤

유통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활동 왕성

■ 유기농업과 사회적 역할

유기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많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닌 다양한 사회적 운동의 실천 활동이다. 농민 스스로의 관행 농업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유기농업은 농가의 자립과 관련된 운동,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운동, 환경파괴에 대항하는 환경보호 운동, 경관과 로컬푸드를 지키고 지역통화나 마을만들기 같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식생활 교육, 공정무역, 슬로푸드, 동물복지, 윤리적 소비 등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유기농업에 대한 여러 활동은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유기농업은 환경부하를 줄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다.

이렇듯 유기농업은 생산자의 의식 전환과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요구, 지역 환경 보전 등 전 사회적인 측면에서 공헌해 오고 있다. 그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지를 지키는 모임’을 소개한다.

■ 사회적기업, 대지를 지키는 모임

‘대지를 지키는 모임’은 1975년에 설립된 유기농식품 전문유통업체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생명을 소중히 하는 사회실현을 구현하고자 ‘대지를 지키는 시민의 모임’으로 시작해, ‘농약공해로부터 안전추구 및 안전한 농축산물의 안정공급’을

목표로 유기농업 운동을 전개해왔다. 대지를 지키는 모임이 시작한 유기농업 운동은 실천적 형태였다. ‘농약의 위험성을 100만명에게 알리는 것보다 한 개의 무농약 무를 생산해서 직접 나르고, 먹는 것에서 시작하자’는 취지로 무농약 채소를 직접 파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해 그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단지 ‘반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사업화’를 통해 사회적인 과제를 해결해가고자 하는 정신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활동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대지를 지키는 모임은 1985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유기농산물 택배 시스템을 시작했다. 안전, 안심, 맛에 초점을 두고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잡화 등을 다루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원활한 배송을 위해 1989년 가나가와현에 배송센터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동경 근교에 물류센터 2곳, 배송센터 6곳을 보유하고 있다. 2014년 3월 기준으로 자본금 약 35억원, 사원수 196명, 매출 약 1,337억원으로 총 이용자는 약 16만 6,000명이다. 이용자 가운데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회원수는 95,000명에 이른다. 생산자 회원은 전국적으로 2,500명으로 총 8,500여 품목을 다루고 있다.

대지를 지키는 모임의 활동은 유통에 그치지 않는다. 1980년대에는 환경을 지키고 활기있는 농축산업을 지켜나가자는 행동네트워크인 ‘DEVANDA’ 운동,



‘대지를 지키는 모임’의 물류센터

국내 축산사료의 자급률을 올리기 위한 ‘이것이 국산’ 운동,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환경을 생각하자는 푸드마일리지 운동, 동지와 하지에 하루 2시간 전기를 끄고 지구환경문제를 생각하자라는 100만인 캔들 나이트 사무국 등을 겸하고 있다.

1990년에는 국제부를 만들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의 유기농업인과 교류를 통해 유기농업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다. 우선 이스라엘과의 분쟁 속에서 유기올리브 농사를 짓고 있는 팔레스티나 농가가 안전하고도 좋은 환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1.3km의 평화의 농사도로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1,500여 명의 소비자로부터 1,500만원의 기금을 마련해 진행됐다. 미얀마에서는 재래종자를 이용한 유기농업 확산을 도모하는 북부지역 소수민족의 유기농장을 지원하고 있다. 미얀마는 최근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농작재와 종자 때문에 재래종자의 사용이 급격히 줄었다. 네

팔에서는 NGO인 Love Green Nepal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지를 지키는 모임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 농업인에게 유기농업 기술을 가르치는 일을 지원해 왔다.

2009년부터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뱅크의 소액융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호혜를 위한 아시아 민중기금’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여러 단체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새우나 필리핀 바나나, 동티몰 커피 등 아시아 남쪽에서 생산된 것을 아시아 북쪽 소비자에게 판매해 그 수익의 일부를 아시아민중기금으로 아시아 농민을 지원하고 있다. 또 아시아 민중건강대학을 통해 태국과 네팔에서 온 농민을 대상으로 2~3주간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인 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 야간강좌도 열고 있다.

2010년부터는 TPP에 대응하기 위해서 TTP(좋은 먹거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했다.

2011년 동북지진 이후, 재해복구를 위한 활동도 진행 중인데 지진 피해 지역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한 ‘부흥지원 프로젝트’와 ‘후쿠시마와 관동 북부지역 농가 지원 세트’ 판매를 개시하였다. 한편 청과물 전 품목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아이들을 위한 안심 채소 세트’를 기획하기도 하였다. 대지를 지키는 모임의 이런 활동 덕분에 2007년 7월, 회장인 후지타 카즈요시씨는 뉴스위크가 선정한 사회적기업인에 채택되어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대지를 지키는 모임의 유기농산물을 사먹는 것은 단지 나의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생산자를 지원하며 더 나아가 우리 지역 환경을 보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지구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과제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글 김기홍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및 홍살림 자문위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친환경농산물 1호 인증기관



한국농식품인증원

Korea Agricultural Product and Food Certification



한국농식품인증원은 좀 더 나은 농업농촌을 생각하는 소비자들과 친환경농업농가의 참여로 자립하는 인증기관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신뢰와 절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축산물, 유기식품, 위급자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식품인증원의 전문적이고, 객관한 인증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더욱 신뢰하는 친환경농업, 농가에게 희망이 되는 친환경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소 충북 청원군 오창읍 리리 1길 7 오창벤처프리자 303호
 전화 043-212-0934 전술 070-8677-3320
 홈페이지 www.kafic.kr 이메일 admin@kafic.kr

상달의 최고 식재료 ‘도라지’

고은정의 농식약동원

구월이라 계추 되니 한로 상강 절기이다. (중략)
 들에는 조피 더미 집 근처는 콩밭 가리
 벼라작 마친 후에 틈나거든 두드리세.
 비단차조 이부꾸리 매눈이 콩 황부대를
 이삭으로 먼저 갈라 후씨를 따로 두소.

세 벌 김매기를 한다는 입추와 처서가 지나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도 지났으므로 이제부터는 가을이 깊어지는 때이다. 식물의 지상부는 말라가고 열매나 뿌리로 모든 기운을 모으는 시기이므로 농부는 김매기 걱정은 뒤로 하고 추수에만 전념하는 때이기도 하다. 과일의 맛은 진해지고 알곡은 영글어 다음 생을 기약하지만 뿌리로 내려간 영양분은 이듬해 봄에 새싹을 틔우기 위한 준비를 한다. 기운이 낮아지는 가을은 세상의 만물이 성장을 멈추고 결실을 이루어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때인 만큼 우리의 인체 역시도 땀구멍을 닫으며 여름철 왕성했던 피부호흡을 거두고 기운을 안으로 수렴하려 한다.

피부호흡이 약해지는 만큼 폐호흡이 증가하는 가을철의 건조한 날씨는 축축함을 좋아하는 폐에 부담을 가중시켜서 잦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한의학에서도 가을은 폐와 통한다고 하며 폐는 호흡을 주관하고 인체의 수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건조한 계절에 폐의 기운을 기르고 폐음(肺飲-폐를 촉촉하게 함)을 잘 보존하여, 공기를 흡입하는 코와 목, 기관지, 폐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진액을 잘 보충하고 생성시켜서 폐를 촉촉하게 하고 음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가을에는 건조한 것을 윤택하게 하거나 몸에 진액을 생성시켜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는데 더덕이나 도라지, 잔대, 우영, 마, 토란 등 뿌리 채소가 바로 그것이다. 이중 특히 도라지는 폐의 기운을 좋게 하므로 예부터 우리는 이런저런 이름의 비빔밥에 넣고 먹었으며 제사어나 명절에 빠뜨리지 않고 상에 올린다. 한방에서는 도라지를 길경(桔梗)이라 부른다. 성질은 약간 따뜻하며 약간 맵고 쓴맛



아린 맛을 빼고 만드는 도라지 음식 중 가을 음식의 백미는 손질한 도라지와 심심하게 절인 슈음배추를 짓갈 넣은 김치양념으로 버무려 담가먹는 김치다.

을 가지고 있으며, 도라지 특유의 아린 맛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으니 그 독성은 우리 몸에서 아픈 것을 치료하거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약성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도라지를 약으로 쓰지 않고 평소에 밥상에 올리는 음식으로 먹을 때는 굵은 소금으로 짹짹 치

덴 후 물에 담가 아린 맛을 빼고 조리하게 된다. 나는 아린 맛을 빼고 만드는 도라지 음식 중 가을 음식의 백미는 슈음배추와 함께 담가 먹는 김치라고 생각한다. 손질한 도라지와 심심하게 절인 슈음배추를 짓갈 넣은 김치양념으로 버무리는 것인데, 이 도

라지김치는 바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어도 좋은 것이 가을이라야 제 맛을 내는 가을만의 특별한 김치다. 아삭한 이 가을의 햇도라지, 이제 김치로 즐겨보면 어떨까. 글 고은정 약선식생활연구센터

1년 중 양기가 가장성한날 ‘중양절’

웰빙식의 최종 진화 ‘세시음식’



국화전



국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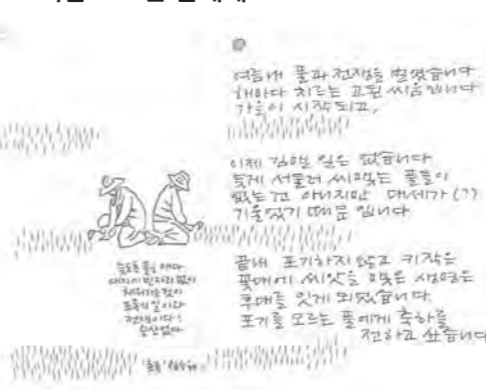
유자화채

음력 9월 9일은 중구절(重九節), 또는 중광절(重光節)이라 하여 양의 수가 두 번 겹쳐 좋은 날로 여겨온 명절이다. 중양절은 국화가 만발하는 시기로 국화 구경을 즐기는 날이라 하여 상국일(賞菊日)이라 하기도 하였다(1849, 동국세시기). 중양절에는 국화주, 국화전 등의 국화로 음식을 만들고 가까운 산, 계곡에서 놀이를 즐기는 풍습이 존재했다. 국화로 술을 빚거나 청주에 띄워 마시는 등 국화를 많이 이용했으며, 잎 등을 말려 약으로도 이용한다. 국화주는 두견주와 더불어 대표적인 절기주. 가향주(佳香酒)로 꼽히며 특유의 색과 향, 계절의 기운이 가득 담겨

눈과 입을 즐겁게 한다. 국화로 화전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는데 삼진날의 진달래, 여름의 장미와 구분하기 위해 화전 대신 국화전이라 부른다. 중구절의 음료로는 막 수확된 향 짙은 유자에 배, 석류를 썰어 꿀물에 탄 유자화채를 즐겨 마셨다. 유자화채는 배, 붉은 석류 알, 잣을 띄운 다음 꿀물이나 설탕물을 부어 위로 떠오르게 하여 시원하게 먹는 음료다. 유자는 비타민 C가 100g당 150mg이나 함유되어 있어 음주로 인한 간의 피로를 풀어 줄 뿐만 아니라 감기, 신장통, 풍의 치료와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출처 농촌진흥청 인테러빙 ‘세시음식’

이철수 판화가의 나뭇잎 편지

포기를 모르는 풀에게 ...



● 자급종자 농가를 찾습니다

흙살림 신문이 자급종자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종자를 직접 자급하고 있는 농가나 그런 농민들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흙살림에 연락을 주세요.

연락처 : 흙살림 사무국 043-833-5004

이달의 흠살림 자재

흠살림 키토산



- 1. 등록사항
유기농업자재 : 공시-4-1-27
- 2. 원료
키토산, 현미식초
- 3. 사용량
500배 희석액 엽면 살포

크고 알찬 열매 만드는데 도움

■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1) 작물 정식 후 7일 간격으로 엽면 살포합니다.
2)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십시오.
3) 한번 사용하고 남은 제품은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4)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특징
1) 흠살림키토산은 최고급 키토산 원료로 작물에 이용되기 쉽게 만들어 졌습니다.
2) 생육촉진과 내병선진진, 토양 방선균 증식, 염류와 중금속 흡착, 상품성 및 저장성을 높여주는 친환경 농자재입니다.
3) 재배시험 결과 무의 생체중과 돌레가 증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효과
1) 시험연도 및 기관 : 2009년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2) 시험작물(품종) : 고추(대신)
3) 처리방법 및 시기 : 500배 희석액을 정식 38일 이후부터 1주일 간격으로 총 4회 경엽처리
4) 조사방법 : 정식 75일 후 지상부 길이, 무게, 과실 길이, 과실 총무게 조사
5) 재배환경 : 노지재배 하였으며, 병해충 관리는 일반 재배력에 따랐음

표1. 지상부 길이 조사 결과

시험 약제	희석배수	지상부 길이				유의성 (DMRT)
		I	II	III	평균	
키토산	500배	79.9	79.1	81.7	80.2	a
무처리	-	74.7	71.5	73.8	73.3	b

C.V.(%) 2.69%

표2. 열매 총 무게 조사 결과

시험 약제	희석배수	열매 총 무게(g)				유의성 (DMRT)
		I	II	III	평균	
키토산	500배	133.1	126.1	120.7	126.6	a
무처리	-	97.8	108.7	98.1	101.5	b

C.V.(%) 5.04%

표3. 열매 길이 조사 결과

시험 약제	희석배수	열매 길이(cm)				유의성 (DMRT)
		I	II	III	평균	
키토산	500배	7.3	7.4	7.5	7.4	a
무처리	-	6.4	5.3	6.0	5.9	b

C.V.(%) 4.99%

■ 결론
가. 비효 시험결과 키토산 처리구 길이는 25.4%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 키토산 처리구 모두에서 비효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흠살림 자재 직접 써보니 ...



유박과 균배양체 함께 쓰면 최고

이양재(충북 괴산군 감물면)
1990년대 초반부터 흠살림 유기농자재를 사용했다. 흠살림이 농자재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써 온 셈이다. 벌레 피해가 생길 땐 청달래와 진달래를 함께 섞어 사용하면서 효과를 봐 왔고, 감자에는 잎살림을 활용해 왔다. 다만 친환경자재가 일반 화학농약처럼 100% 벌레를 죽일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된다. 50% 정도만 방제해도 효과가 큰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 농사를 지으려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흠살림 유기농자재 중 균배양체는 정말 좋다. 보통 유박만으로 퇴비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균배양체와 1대 1로 함께 쓰면 활착이 잘 되는 등 훨씬 효능이 뛰어났다. 올 가을엔 '잘들어'를 처음 써보는데 기대가 크다.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쓰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격 부담이 꽤 크다는 것이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생선 아미노산 쓰니 브로콜리 결구 단단


전중화(충북 괴산군 감물면)
7년 전 좀 농사를 시작할 때부터 흠살림 농자재를 사용해왔다. 현재 브로콜리, 양배추, 양상추, 감자 등 2,000평 정도에 무농약으로 짓고 있다. 표고버섯은 유기농이다. 브로콜리에 꽃이 생겼을 때 생선 아미노산을 쓰는데 결구가 단단해지고 예쁘게 잘 크는 등 효과가 좋다. '잘들어'는 올 봄에 처음 써봤는데 충 방제 효과를 봤다. 그런데 이맘때쯤 귀뚜라미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귀뚜라미를 잡을 수 있는 친환경자재를 개발해줬으면 좋겠다.



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귀뚜라미를 잡을 수 있는 친환경자재를 개발해줬으면 좋겠다.

신개념 기능성 복합 성분제

슈퍼도움이



제품의 특징 및 효과
·슈퍼도움이는 국내 환경에서 적용된 우수한 균주 중에서 선발된 미생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유익한 미생물의 장내 정착을 유도하여 장내 생태학적인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철저한 사양실험과 위생적인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되며, 높은 균 밀도를 유지하여 항생제에 약해진 가축의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면역강화물질인 만니톨리고당, 베타글루칸, 유카추출물 등이 포함되어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여 생산성을 높입니다.
·대장균, 살모넬라균을 억제하여 장내 미생물총에 유리한 변화를 유도합니다.
·미생물의 대사 부산물이 장내 산도를 조절하므로 유해균 발생이 억제됩니다.
·분뇨의 악취를 감소시켜, 발효축산으로 분뇨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유전자 조작된 원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조균, 유산균, 효모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방법
·배합사료 혼합 : 사료 5톤당 5~10g 혼합하여 사용

사료비 절감을 위한

발효도움이



제품의 특징 및 효과
·발효도움이는 흠살림의 특허미생물 기술을 바탕으로 선발된 우수한 미생물을 사용합니다.
·발효도움이는 국내 환경에 알맞은 우수한 성분제 제품입니다.
·유익한 미생물의 장내 정착을 유도하여 생태학적인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임모니아, 아민 등과 같은 유해가스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각종 유기산의 생성으로 소화효소를 활성화 시킵니다.
·기호성을 증가시켜 사료효율을 향상시킵니다.
·분뇨의 악취를 감소시켜 발효축산으로 분뇨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발효사료 제조시 발효환경을 최적화 시킵니다.

사용방법
·원료 250kg 기준으로 발효도움이 1.0(2kg) 혼합
·TMR 제조시 원료 1톤당 5.0(10kg) 혼합

구입 및 문의사항 043-216-8179 | 쇼핑몰 <http://shop.heuksalm.com> | 입금처 농협 323-01-063992 | 예금주 (주)흠살림

· **안녕하세요! 흙살림 후원회원입니다**



저농약에서 무농약 가는 길 흙살림이 힘이 되어 주세요

— 강명임 (경기도 평택)

2012년 천안에서 열렸던 ‘2012대한민국 국제 농기계 자재 박람회(KIEMSTA)’에서 우연히 흙살림을 알게됐다. 흙살림이 유기농자재를 만들고 또 유기농의 과학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돼서 자발적으로 후원하게 됐다. 후원회원들의 조그마한 도움들이 모여서 흙살림이 유기농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연구에 더욱 매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평택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는데 현재 저농약이다. 이외에 수도작과 고추·배추·들깨 농사 등을 짓고 있다. 그런데 저농약이 곧 친환경 인증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저농약만 하더라도 풀과의 전쟁을 치르느라 고생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지금으로선 막막하다. 흙살림이 도움

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 흙살림이 만들었던 1년 재배력 달력같은 것이 소품이지만 큰 도움이 된다. 농민들을 위해서 퇴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법 같은걸 쉽고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보급한다면 좋겠다. 앞으로도 유기농의 과학화 연구를 지속해서 우리나라 유기농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 ... 좀더 안정적인 길 없나요

— 구현수 (전라북도 무주)

무주에서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을 지낼 때 이태근 흙살림 회장의 교육을 받으면서 인연을 맺어왔다. 지난해 생산자 농가 모임이 있을 때 후원회원에 가입했다. 현재 무주에서 사과와 블루베리를 키우는 한실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제초제를 쓰지 않는지는 20년이 넘는다. 무농약 인증은 7년 전쯤 받았다. 내가 좋은 것 먹겠다는 생각으로 친환경농업을 시작했다.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풀 때문이다. 제초 문제 때문에 차광막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결된다면 유기농으로 갈 의지가 있다. 그런데 항상 판로가 문제다.

친환경 농업을 한다고 정부가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이 없는데 판매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아마 모든 농가들이 수급에 상관없이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할 것이다. 흙살림이 이런 역할을 해준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을텐데...

흙살림연구소 현장실습교육생 모집

■ 교육소개

- 현장실습교육(WPL)이란?
 - 선도농업인의 기술과 현장 노하우를 현장 실습 교육 습득으로 경쟁력 제고
 - 영농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선진영농기술 습득으로 현장 적용 능력을 향상시킴



■ 흙살림연구소 현장실습교육장 정보

- 장소: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쇠실로 286-138
- 유형 및 품목: 전국대표실습장/수도작, 시설채소류

■ 교육과정 소개

○ 교육 과정 및 모집 시기

구분	대상	모집기간	교육일시	내 용	교육비(1인)
유기자재 만들기	귀농인	2월~11월	2월~11월	-균배양제 완숙 퇴비 만들기	45,000원
	농업인			-액비 만들기	
친환경 시설채소 재배	귀농인	8월~9월	9월~10월	-시설채소 재배 실습	296,000원

■ 교육문의 상담

- 세부 교육 일정과 내용은 사단법인 흙살림연구소로 문의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교육문의: 전화)043-833-5004, 팩스)043-833-5007, 이메일)micol112@heuksalim.com
- 은행 및 계좌번호: 301-0142-0798-61 / 농협 -입금처: 사단법인 흙살림연구소

■ 9월 흙살림 주요 일정

날짜	장소	구분	인원	내용
2일	괴산	교육	12	괴산군 유기농업리더 양성교육
12일	서울	장터	-	서울시 관악구청 직거래 장터
16일	괴산	교육	12	괴산군 유기농업리더 양성교육
19일	괴산	견학	20	대구 북구청
20일	괴산	교육	6	현장실습교육(WPL)
	괴산	견학	40	원주생활협동조합
23일	괴산	교육	30	평택농업기술센터 유기자재만들기
24일	괴산	견학	6	필리핀 사회적 기업 사업가 방문
27일	괴산	행사	50	제8회 토종 전시포 방문의 날
	괴산	행사	50	서울 광진구 도농교류
30일	괴산	교육	30	전북유동사업단 유기자재만들기
		교육	20	경북농민서관학교 유기자재만들기

■ 알림

흙살림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명이 숨쉬는 땅을 만들기 위한 한 톨의 밑거름을 뿌려주세요. 후원금은 우리 흙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문의: (사)흙살림연구소 사무국 043-833-5004. 후원금 및 회비 납부처: 농협 323-01-059315. 사단법인 흙살림연구소.

■ 흙살림 후원회원 명단

강명임, 곽태성, 구현수, 권득산, 권사홍, 권영삼, 김갑태, 김경인, 김계향, 김광남, 김광부, 김난영, 김남운, 김동숙, 김동연, 김동진, 김명실, 김병수, 김봉균, 김생수, 김신유, 김연철, 김영권, 김영철, 김원섭, 김윤목, 김이진, 김인훈, 김정곤, 김정순, 김창호, 김창환, 김홍희, 김행숙, 김현주, 나기창, 남기운, 도봉숲속마을, 도명수, 라병현, 라양채, 류훈희, 문삼기, 민병용, 민성기, 민인기, 박규권, 박기선, 박기환, 박동윤, 박래훈, 박미경, 박미숙, 박미영, 박병혁, 박상일(서울), 박상일(해남), 박성남, 박승희, 박안필, 박영숙, 박영범, 박익준, 박익순, 박정국, 박종삼, 박종수, 박종화, 박준순, 박재동, 박재환, 박효은, 반명수, 방미진, 배은아, 백미숙, 백운남, 서성내, 서순악, 서현주, 석종욱, 선희균, 성경숙, 성기남, 송기봉, 송동홍, 송종훈, 송재중, 송지은, 신동규, 신문수, 신언관, 신치영, 신희기, 심민보, 안정택, 양병근, 엄창근, 오과칠, 오두연, 오지은, 유승찬, 유우현, 육중식, 윤국현, 윤미경, 윤성희, 이강욱, 이계수, 이기중, 이도훈, 이명환, 이미선, 이민채, 이병두, 이선헌, 이석천, 이성원, 이승훈, 이양희, 이원호, 이유정, 이은미, 이일웅, 이재숙, 이재웅, 이재형, 이재희, 이정필, 이정호, 이종국, 이준규, 이진태, 이태근, 이필규, 이항순, 임승익, 임원택, 장동철, 장명숙, 장명순, 장정수, 전광석, 전희수, 정광영, 정구홍, 정규원, 정기인, 정기환, 정명순, 정민수, 정석조, 정인숙, 정창환, 정청천, 조광운, 조기진, 조복남, 조정신, 조종기, 조희주, 주영직, 주윤식, 천호균, 최경주, 최관호, 최광욱, 최금열, 최서연, 최연숙, 최유라, 최인철, 최춘식, 편용길, 하재우, 한인성, 함선녀, 함종식, 허병문, 허상오, 허현욱, 홍승면, 홍정욱, 홍종윤, 황정연, 황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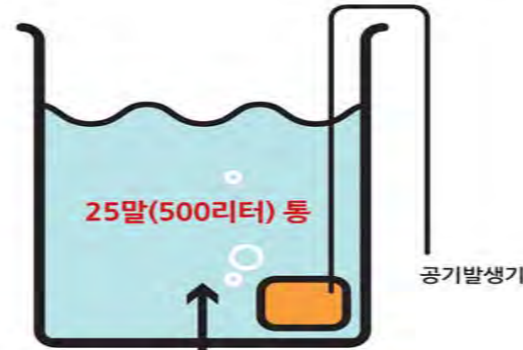
흙살림 신문이 광고를 받습니다

흙살림 신문이 광고를 받습니다. 유기농자재는 물론 농산품, 농업관련정책 등등 농업과 관련된 소중한 정보를 흙살림 신문을 통해 전달하세요. 흙살림 신문은 흙살림 회원과 생산농가, 농업관련단체, 꾸러미 회원들은 물론 도시농부와 소비자들이 모두 읽는 소

식지입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대상에게 정확히 전달해 줌으로써 목적하신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유기농업의 '믿음 가는 동반자' 흙살림과 함께 하세요. 흙살림 신문 광고 문의: (사)흙살림 연구소 사무국 (043-833-5004)

휴살림 생육촉진·품질향상용

자가 액비 제조세트



<p>활인산 10L</p> <p>양분가용화, 발효, 생육촉진 공사4-1-119</p> 	<p>빛모음 1 L</p> <p>뿌리보호, 활착, 세균발달 공사4-1-26</p> 	<p>생선아미노산 10L</p> <p>유기농 액비, 양분공급 공사1-1-21</p> 	<p>바이오숨 10L</p> <p>생육밸런스 조절, 미네랄, 당도수량증가 공사3-1-4</p> 	<p>해초 250gx2병</p> <p>비대촉진, 천연호르몬, 아미노산 공사4-1-24</p> 
<p>당밀 10L</p> <p>발효 미생물 탄소원, 미량요소</p>				

농협계통 유기질비료

양분파괴가 적은 저온 성형.
냄새가 다릅니다. 토양살포 후,
발효가 빠르고 분해가 잘됩니다.

농협계통 유기농업용 발효퇴비

풍부한 발효미생물과 천연양분을 함유하고,
염류집적없이 비효가 빠릅니다.
흙을 살리는 친환경 종합토양관리제.



휴나라 유박골드
친환경
혼합유박-펠릿(20kg)
4.3-1.7-1
+유기물 7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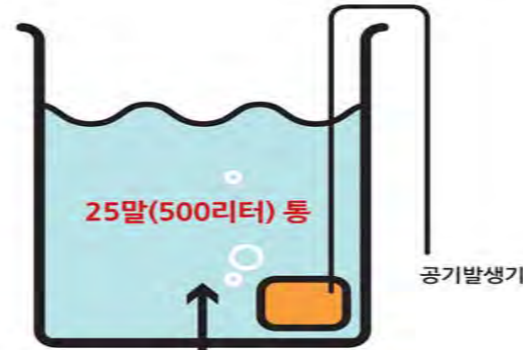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품



휴나라 균배양체
1등급 부숙퇴비(20kg)
+유기물 40% 이상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품

휴살림 생육촉진·품질향상용
자가 액비 제조세트



<p>활인산 10L</p> <p>양분가용화, 발효, 생육촉진 공사4-1-119</p> 	<p>빛모음 1 L</p> <p>뿌리보호, 활착, 세균발달 공사4-1-26</p> 	<p>생선아미노산 10L</p> <p>유기농 액비, 양분공급 공사1-1-21</p> 	<p>바이오숨 10L</p> <p>생육밸런스 조절, 미네랄, 당도수량증가 공사3-1-4</p> 	<p>해초 250gx2병</p> <p>비대촉진, 천연호르몬, 아미노산 공사4-1-24</p> 
<p>당밀 10L</p> <p>발효 미생물 탄소원, 미량요소</p>				

농협계통 유기질비료

양분파괴가 적은 저온 성형.
 냄새가 다릅니다. 토양살포 후,
 발효가 빠르고 분해가 잘됩니다.

농협계통 유기농업용 발효퇴비

풍부한 발효미생물과 천연양분을 함유하고,
 염류집적없이 비효가 빠릅니다.
 흙을 살리는 친환경 종합토양관리제.



휴나라 유박골드
 친환경
 혼합유박-펠릿(20kg)
 4.3-1.7-1
 +유기물 70% 이상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품



휴나라 균배양체
 1등급 부숙퇴비(20kg)
 +유기물 40% 이상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품